불교총지종
총지종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종보

총기 43년
2014년 7월 1일
음력 6월 5일
월 간 발 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법등(구창회)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58년 제176호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과 선망부모 조상영식 천도불공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영식천도를 위해 염주와 진언을 놓치 않으신 승단의 스승님과 보살님 그리고 각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애타게 챙겨주며 질서를 지킨 단원고의 어린 학생들, 그들을 보호하며 목숨을 던진 단원고의 선생님들, 그리고 세월호에 탑승한 모든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발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사회는 인연의 굴레에 함께 묶여 있는 공업(共業)의 세계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행복을 바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회가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보시와 이타의 보살정신으로 이웃의 고통을 내 몸과 같이 생각할 때에 극락정토가 이루어지며, 이 사회의 고통도 저절로 소멸될 것입니다.

세상을 다 알아가기도 전에 어른들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희생된 가여운 영혼들, 우리 어른들은 공업중생(共業衆生)의 인연을 생각해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시와 이타의 정신으로 이웃과 사회의 어두운 곳이 소멸될 수 있도록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호국안민기원대법회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주무주고혼 영식 그리고 모든 일체중생의 천도와 해탈을 위한 법회이며, 또한 큰 뜻의 방생법회이기도 합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이러한 법회의 의미를 잘 새기시어 더 나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승단의 스승님들과 교도 보살님께 비로자나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가지력이 충만하기를 비로자나 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총기 43년 7월 16일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합장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사 및 세월호 희생자 영가천도 49일 불공 회향

7월 16일 호국안민기원법회 각 교구별 봉행

불교총지종의 전통적인 수행법인 하반기 49일 불공 및 세월호 희생자 영가천도를 위한 불공이 오는 7월 15일 회향한다. 지난 5월 28일부터 총본산 총지사를 비롯한 전국의 서원당에서 「호국안민과 조상 영식 천도를 위한 기도」와 「세월호 희생자 영가천도 49일 불공」으로 봉행되었다.

효강 종령 예하는 호국안민기원법회 법어를 통해 "세상을 다 알아가기도 전에 어른들의 욕심과 무지로 인해 희생된 가여운 영혼들, 우리 어른들은 공업중생(共業衆生)의 인연을 생각해 아이들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경제, 교육 등 사회제도를 개선하여 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며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서원했다.

총지종의 진호국가불사(鎭護國家佛事)는 '외적의 침입이나 환란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불공'이다. 그 발원은 삼국시대부터이며 종조 원정 대성사는 "수호국계주다라니경"을 근거로 1975년 진호국가불사 의궤와 "옴훔야호사"진언을 제정했다. 총기 20년(1991년) 당시 록정 종령은 상반기 49일 불공은 '자녀 잘되기 서원불공', 하반기 49일은 '현재 부모에 효순하고 선망부모 해탈 서원불공'으로 제정했다. 또한 이번 불공은 지난 4월 16일 진도 팽목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발원도 함께 서원했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다음날인 7월 16일에는 각 교구별로 '호국안민기원대법회'가 봉행된다. 호국안민과 선영에 대한 서원으로 봉행되는 이 법회는 부지불식간에 지어온 과보를 소멸시키는 자기실천법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 경인 교구 및 충청 .전라 교구는 부여, 부산. 경남 교구는 고흥, 대구. 경북 교구는 제천 의림지에서 각각 봉행할 예정이다.

통리원=장동욱 과장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과 불교사상으로 청소년 교육에 힘을 모으자.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일본 후쿠오카 선도사 대회 봉행

▲ 공동발표문을 상호 교환하는 양국 사무총장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큐우슈우 후쿠오카 선도사 일원에서 봉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을 단장으로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및 총지종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정사, 중앙교육원장 화령 정사, 총무부장 인선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경 정사, 사회부장 지정 정사, 신정회 서울. 경인 김은숙 지회장, 정각사 이상록 보살(한일불교 여성부), 사회부 김태원 교무가 대표로 참가했다.

6월 10일 정토종 팔대본산의 하나인 선도사에서 봉행된 본 대회에서는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시작으로 학술발표, 공동선언문 발표 등이 이어졌다.

법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극락왕생, 한일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하다 열반에 든 양국 스님들의 극락왕생을 선도사 아미타본존에 서원했다.

학술발표는 일본 측에서는 대정대학교 부학장인 불교학부 히로사와 타카유키 교수가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한국 측에서는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허남결 교수가 "청소년의 자살율 증가와 불교인성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발표 후에는 한국 측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과 일본 측 사무총장 노자와 류-코(진언종 정천사 주지)의 주제로 공동선언문 조인 및 발표가 있었다. 양국이 조인한 공동선언문은 "이번 양국의 불교도들은 진도 해상에서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본 대회 후에는 후쿠오카 남장원, 동장사 등 사찰을 참배하고 아소산, 유후인을 관불했다.(관련기사 3,6,7면)

후쿠오카=이상록 통신원, 김태원 교무, 김종열 기자

새로운 종풍운동

첫째, 벼를 깎는 듯한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용맹정진하며 전신적(全身的)인 삼밀관행을 실천해 나갑시다.

둘째, 정재(淨財)는 부처님 재산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며 관리를 철저히 합시다.

셋째,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隨順)합시다.

넷째,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널리 홍포 (弘布)합시다.

다섯째,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身命)을 바치도록 합시다.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호국안민기원 대법회

호국안민기원 대법회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해탈로 이끌고
소외받는 이웃을 돕는 자리이타행의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금번 법회에 무루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 성취 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일 시 총기 43년 7월 16 일(수)

장 소 각 교구별로 시행

불교총지종

제64주년 6.25 한국동란, 국립현충원 참배

총지종 통리원 집행부 및 종무원 일동 참배

▲ 현충문을 통해 입장하는 통리원 집행부

불교총지종 통리원은 제64주년 6.25 및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법등 통리원장, 화령 중앙교육원장, 인선 총무부장, 우인 재무부장, 법경 밀교연구소장, 원당 교정부장 및 종무원이 참배에 동참했다.

참배단을 대표해 법등 통리원장은 국립현충원 충혼탑 호국 영령 위패 전에 훈향정공하였다.

동참 대중들은 특별 서원사항으로 ▶6.25 한국동란 민간희생자 영식왕생성불 사바하, ▶6.25 한국동란 전몰군경 영식왕생성불 사바하 ▶6.25 한국동란 학도병 영식왕생성불 사바하를 서원하였다. 동참 대중들은 묵념에서 6.25 한국동란으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다시는 민족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기를 서원했다.

통리원장 법등 정사는 "민족의 큰 아픔인 6.25 한국동란에서 희생된 영가들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공덕으로 모두 극락왕생하시기를 서원합니다. 이름 없이 죽어간 학도병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부처님의 법안에서 영가들이 안식을 얻기를 바랍니다."며 오늘 국립현충원 참배의 의미를 전했다.

국립현충원=김종열 기자

마하시센터 '자가라' 스님 특별강연

미얀마 불교와 위빠사나 수행법

▲ 특별강연하는 자가라 스님

불교총지종 어울림문화센터 개원 기념으로 미얀마 마하시센터 자가라 스님의 특별강연을 열었다.

6월 29일 총지종 총본산 총지사 서원당에서 열린 강연에는 총지종 교도 및 강연에 동참하고자하는 불자 약 100여명이 동참했다.

어울림 문화센터 김종인 센터장의 스님 수행이력 소개로 시작된 강연은 미얀마인 유학생의 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자가라 스님은 미얀마불교의 상징인 양곤의 쉐다곤 파고다 이야기를 시작으로 미얀마 불교의 역사에 대해 강연했다.

지금은 전 세계 불자들과 동양의 명상법을 공부하러오는 마하시센터의 수행법도 소개했다. 위빠사나 수행의 단계와 절차를 소개하고, 수행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의 경지를 득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증득하는 것이라 했다. 어울림 문화센터는 6월 한 달간 시범 강연을 시행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총지사 인덕심 전수 모친 49재 추선 법회 봉행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한 스승 및 교도 200여명 동참

▲ 인덕심 전수 모친 신필안 보살 49재

법등 통리원장의 집공으로 봉행된 인덕심 전수의 모친 신필안 보살 49재가 6월 19일 전국의 스승과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고인의 극락왕생 발원으로 엄숙히 치러졌다.

유가족 대표 장남 김기덕 각자는 인사말에서 "효강 종령 예하를 비롯하여 오늘 저희 어머님 49재에 동참하신 스승님과 교도 여러분께 감사의 합장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불공 공덕으로 부디 어머님의 영가가 극락왕생하시기를 서원 합니다."며 49재에 동참한 스승과 교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효강 종령 예하, 법등 통리원장, 수현 중앙종의회 의장, 인선총무부장 등 스승 및 교도들이 동참했다.

부산 · 경남교구 통신원 소식

부산 · 경남 신정회 스승의날 보은 행사 스승님 공양

부산 · 경남 신정회(지회장 신인록)는 6월 12일 온천장 '더파티'에서 신정회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금으로 기로 스승을 포함한 부산. 경남 전 스승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번 공양은 5월 스승의 날 보은행사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다.

신정회 신인록 지회장은 "신정회 간부들이 조금씩 조성하여 불우이웃돕기와 꼭 필요한 공양에 쓰이는 기금으로 기로 스승님을 포함한 스승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며 이날 공양의 의미를 전했다.

정각사 국기게양대 재정비 운영

부산 정각사 신정회는 사원에 설치된 국기게양대 주변을 정돈하고 보수하여 태극기를 게양했다.

특히 49일 진호국가 불사를 봉행하는 중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국기게양대 정비작업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라의 안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총지종 교도의 서원을 담는 일이기도 하다.

정각사 양초 관리 및 교도 편의를 위한 아이디어 시행

정각사는 보살님들의 정성으로 마련한 양초 공양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아이디어를 시행했다. 양초가 끝까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육자진언으로 장식된 작은 원통을 제작 사용하였다. 이 원통을 사용하면 작아서 불을 밝힐 수 없는 양초가 마지막까지 심지를 태울 수 있다.

또한 노 보살들이 사용하는 의자가 발받침이 없어 불편하였는데, 이를 위한 아이디어로 두꺼운 스티로폼을 포장지로 감싸 발받침으로 사용하여 보다 편안한 자세로 오랫동안 불공 정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정각사 통신원=김정애, 한미옥, 김윤경, 이상록

인터넷 총지종보 www.chongjinews.com

부처님 자비 광명, 어려운 이웃과 나눠요

5월26일부터 6월25일까지

후원회 가입안내

불교 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 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원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 사회복지 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무명씨	6/9	20,000
개천사	강순시	6/16	10,000
개천사	이희권	6/25	20,000
관성사	황성녀	5/29	10,000
관성사	김동운	6/13	30,000
관성사	인 선	6/23	20,000
관성사	김홍조	6/25	10,000
기 로	대 관	6/21	10,000
기 로	대자행	6/23	10,000
기 로	밀공정	6/23	10,000
기 로	법수원	6/23	10,000
기 로	법장화	6/23	10,000
기 로	법지원	6/23	10,000
기 로	불멸심	6/23	10,000
기 로	사홍화	6/23	10,000
기 로	상지화	6/23	10,000
기 로	수증원	6/23	10,000
기 로	총지화	6/23	10,000
기 로	선도원	6/23	10,000
단음사	법연지	6/16	10,000
만보사	정덕순	5/28	10,000
밀인사	정정희	5/28	5,000
밀인사	무명씨	6/12	10,000
밀인사	이봉희	6/12	10,000
벽룡사	양정현	6/9	10,000
벽룡사	양지현	6/9	10,000
삼밀사	하명순	6/16	10,000
선립사	황귀석	6/10	20,000
선립사	심지장	6/18	10,000
수인사	김봉기	5/27	10,000
수인사	무명씨	5/28	10,000
수인사	정순득	6/13	10,000
수인사	김봉기	6/25	10,000
승천사	원 봉	6/16	10,000
승천사	지선행	6/16	10,000
실지사	이순명	5/29	100,000
실지사	정경자	6/5	10,000
실지사	정우석	6/13	10,000
실지사	박병성	6/20	50,000
실지사	법안정	6/20	5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5/26	30,000
	이준동	5/26	10,000
	김지연	5/26	10,000
	김지영	5/26	10,000
	최복란	5/27	10,000
	서선숙	6/2	10,000
	이준동	6/24	10,000
	김지연	6/25	10,000
	김지영	6/25	10,000
정각사	김문수	6/25	10,000
지인사	승효제	6/16	10,000
지인사	지 성	6/16	10,000
지인사	허성동	6/20	30,000
초록어린이집			
	초록v~	5/26	10,000
	황화성	5/26	30,000
	이은주	5/27	10,000
	오현주	5/30	10,000
	이지은	6/4	10,000
	초록v~	6/24	10,000
	황화성	6/24	30,000
	이상은	6/25	10,000
총지사	법 등	6/3	30,000
총지사	손경옥	6/21	17,143
화음사	강순란	6/2	10,000
흥국사	지 정	6/16	20,000
사원무기재			
	장재은	5/26	10,000
	현진영	5/27	10,000
	구미자	6/2	10,000
	천소영	6/12	10,000
	김갑선	6/19	10,000
	최영례	6/20	10,000
	현진영	6/25	10,000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식 환영 만찬

양국의 불교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리

▲ 일본 측이 주최한 공식 환영만찬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식 환영 만찬이 6월 9일 오후6시 일본 후쿠오카 뉴 오타니 하카다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일본 측에서 준비한 공식 환영 만찬에는 한일 양측 참가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일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니시오카 료-쿄 스님은 환영사에서 "큐슈 제일의 가람을 자랑하는 선도사에서,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를 심도있게 논의 할 예정입니다. 이는 양국의 불교계가 전개하고 있는 커다란 운동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서로가 깊이 연구하고 의견을 나누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양국 대표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서원했다.

이어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장 도산(태고종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개최되는 대회는 양국이 그간 추진해온 불교의 사상적 발전과 문화교류에 더하여 불교의 미래이자 우리 인류의 내일인 청소년 교육에 대한 심층 깊은 조명으로 양국 간 연구와 대화의 지평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며 이번 대회가 양국의 청소년 문제의 깊은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후쿠오카 쿠루메(久留米)시 정토종 대본산 선도사(善導寺) 법주 아가와 분쇼 스님은 인사말에서 "절을 짓고, 불상을 만드는 것부터 신라 정토교의 「무량수경」에 설하신 아미타불 48원(願)의 원명(願名) 등의 교리를 따르는 것 과 같이 양국 불교계에 있어서도 학문과 문화의 교류는 대단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양국의 문화 교류의 역사성과 전통을 이어 이번 대회가 아무런 불편없이 성만하기를 발원했다.

이어 자승 스님과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양국이 준비한 선물을 교환했다. 일본 측에서는 한일양국의 불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온 총지종 총무부장 인선 정사, 진각종 총무부장 덕정 정사, 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등 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공식 만찬은 "양국 불교교류회의 유대가 회원 여러분의 존귀한 대승보살의 행원(行願)에 의해 점차 두터워지고 공고해져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라고 일한불교문화교류협의회 고문 미나미자와 도-닝 스님의 건배사로 공식 대회 행사의 서막을 열었다.

공식환영만찬 문화 행사로는 후쿠오카 지역의 전통 무용 공연을 함께하며 서로간의 교류와 협력이 공고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양국 회장 및 임원진 간담회

한국은 일본 문화의 어머니와 같은 나라입니다.

6월 9일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공식만찬에 앞서 한일 양국 회장 및 임원진 간담회가 열렸다.

이 간담회에는 일본 측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 고문 미나미자와 도-닝 스님, 부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 이사장 니시오카 료-쿄 스님, 사무총장 노자와 류-코 스님, 아가와 분-쇼 선도사 법주 스님, 정토종 종무총장 토요오카 료-지 스님, 세계불교도연맹 펠럽 타아아리 사무총장이 나왔다.

한국측에서는 회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회장 춘광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향적 스님(조계종 중앙종의회 의장), 홍파 스님 (관음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가 참석했다.

일본 측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인사말에서 "일본은 문화적으로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 한국은 어머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이지만 양국의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뛰어 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를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가슴으로 아파했습니다."며 최근 큰 아픔을 겪은 한국 불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양국 불교도들의 화합과 상생을 이끌어 내는 대회가 되기를 서원했다.

한국 측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양국의 불편한 상황도 불교의 유연성으로 잘 극복해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일본 불교의 유연성으로 5년전 신륵사에 평화기원탑을 조성 할 때도 지나간 역사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은 한국을 문화적인 어머니의 나라로 표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유연성과 우호를 바탕으로 양국의 불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서원합니다."며 인사의 말을 전했다.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정토종 선도사 본대회

세월호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세계평화를 기원

▲ 정토종 선도사에서 봉행된 평화기원 법요식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본대회는 6월 10일 일본 큐우슈유 쿠루미시 정토종 선도사에서 평화기원법요식을 시작으로 개최되었다.

선도사 본당에서 봉행된 평화기원법요식에 동참한 양국 대표단 300여명은 일본 정토종 법회의식에 따라 표백문과 기원문을 봉독하고, 양국 대표의 대회사, 인사말, 축사, 개회선언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일본 측 부회장 후지타 류-죠 스님은 표백문 봉독에서 "금일이 정찰(淨刹)에서 제35차 일한.한일 불교문화교류대회를 개최 보전에 서원을 바치니, 세계평화, 인류화합공생을 기념하도다"라며 이번 대회 참가자들의 인류화합과 평화를 위한 서원을 부처님 전 고했다.

한국 측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은 기원문에서 "한일양국 국운융창 세계평화 인류행복 한일불교 중흥발전 양국유대 우호증진지대원"라고 양국의 발전과 불교도 화합을 기원했다.

이번 대회의 주최 측 일한불교문화교류회 회장 미야바야시 쇼-겐 스님은 "법(法)은 스스로 퍼지지 않고, 사람을 통해 퍼진다고 합니다만, 현재 세계는 전화(戰火)가 이어지고 혼돈(混沌)이 난무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미래를 향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평화를 지키나아가야 합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의 기초 불사가 되자고 대회사에서 밝혔다.

한국 측 회장 자승스님은 인사말에서 "최근 한국에서는 기본 상식을 지키지 않은 기성세대의 허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세월호 사건을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 주신 일한불교문화교류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며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함께 발원해 준 일본 측 대표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평회기원법요식은 선도사 본당 앞에서 양국 대표단이 모두 참가한 기념사진 촬영을 마지막으로 끝났다.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학술교류대회 및 공동선언문 발표

불교의 사상으로 청소년의 인성을 책임지는 불교가 되자

▲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학술 발표회

6월 10일 오후 1시부터는 양국의 학자들이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이라는 주제로 양국의 학자들이 주제발표를 하고 이어 양국 사무총장의 공동선언문 발표가 있었다.

학술대회 개회식에서 한국 측 부회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는 인사말에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청소년 불교교육이 미래불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지에 주목하셔야 할 것입니다."며 양국 학자들과 불자들이 청소년 불교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랬다.

이번 학술발표는 일본 측에서는 대정대학교 부학장인 불교학부 히로사와 타카유키 교수가 "불교사상과 청소년 교육"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고, 한국 측에서는 동국대학교 윤리문화학과 허남결 교수가 "청소년의 자살율 증가와 불교인성교육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발표가 끝난 후에는 한국 측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과 일본 측 사무총장 노자와 류-코(진언종 정천사 주지)의 주제로 공동선언문 조인 및 발표가 있었다.

양국이 조인한 공동선언문은 "이번 양국의 불교도들은 진도 해상에서 침몰된 여객선 '세월호'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다는 것을 체득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가 있다."고 발표했다.

공동선언문 발표를 끝으로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의 공식 일정을 모두 마쳤다.

불교의 선정 29 사념처 수행

법념처(5)

관사성제(觀四聖諦)

화 령 / 철학박사 중앙교육원장

법념처 수행의 5가지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오개, 관오온, 관십이처, 관칠각지 그리고 관사성제이다. 사성제는 삼법인과 함께 불교의 중심교리이며 법념처 수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성제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 실천하는 것이 불교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다섯 비구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도 이 사성제이다. '제(諦)'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인데 사성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라는 뜻이다.

사성제는 고(苦)성제, 집(集)성제, 멸(滅)성제, 도(道)성제의 네 가지로서 간략히 '사제(四諦)'라고도 한다.

고성제는 인생은 고해와 같은 것으로서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 고라고 보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도 고, 늙는 것도 고, 병드는 것도 고, 죽음도 고이며 미워하면서도 만나야 하는 것[원증회고(怨憎會苦)], 좋아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것[애별리고(愛別離苦)],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것[求不得苦(구부득고)],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자체가 고[오취온고(五取蘊苦)]라고 보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고성제이다.

집성제는 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으로서 불교에서는 모든 괴로움은 갈애(渴愛)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갈애라고 하는 것은 목이 말라 괴로워하는 것처럼 집착하고 갈구하는 것이다. 뭍에 올라온 고기가 물이 없어 헐떡이는 모습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인간들도 이와 같이 재물, 이성, 권력 등에 탐착하면서 이를 가지지 못해 괴로워 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갈애가 모든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이며 중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육도를 윤회하면서 생사의 괴로움을 되풀이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멸성제라는 것은 세간의 모든 괴로움을 끊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청정하고 지혜로운 마음가짐으로 괴로움의 실상을 잘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만들지 않으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해탈이며 그러한 경지를 열반이라 한다. 갈애가 완전히 식어버리고 번뇌가 다한 것이 멸성제에서 말하는 경지이다.

도성제는 멸성제에 이르는 방법을 설한 것이다. 거기에는 바른 견해[정견], 바른 생각[정사유], 바른 언어[정어], 바른 행위[정업], 바른 직업[정명], 바른 정진[정정진], 바르게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정념], 바른 선정[정정]의 8가지가 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중도라고 한다. 생각과 행동에서 양 극단을 피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의 극단이 있으니 감관의 느낌을 통하여 쾌락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는 저급하고 무익한 범부의 길이다. 또 하나의 극단이 있으니 자기를 학대하는 고행을 통하여 도에 이르려고 하는 것으로 이는 괴로움이며 가치가 없고 무익한 일이다."

도성제의 내용인 팔정도는 이러한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택하여 영원한 안락에 이르는 8가지 방법이다.

《대념처경》에서 사념처를 언급한 곳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셨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법에 안주하고 사성제에 의지하여 제법을 관찰하는가?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라고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의 원인이라고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의 멸이라고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것은 고의 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실히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은 사성제를 바르게 깨닫는 방법은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한다[여실요지(如實了知)]는 것을 일러주신 것이다. '여실'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이다. 고가 어떤 것이며 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고가 멸한 상태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를 멸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다.

중생들은 자기에게 괴로움이 닥쳐올 때는 그 괴로움을 세상의 그 어떤 고통보다도 더 크게 느끼지만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또 쾌락을 추구한다. 그러한 쾌락 추구가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이 되는지를 모르는 채.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인 팔정도에 대한 이해도 쉽지 않다. 중도의 입장에 선 정견이나 정사유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알려면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실히 바르게 알라고 하신 것이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안다는 것이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성제'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의 관찰과 이해는 불교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궁극적인 것이다.

사성제의 관법

사성제를 관함에 있어 먼저 고성제를 살펴보자.

《대념처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태어남[生]이 괴로움[苦]이고 늙음[老]이 괴로움이며 죽는 것[死]이 괴로움이다. 수(愁)·비(悲)·고(苦)·우(憂)·뇌(惱)가 괴로움이며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원증회고]이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애별리고]이 괴로움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구부득고]이 괴로움이니 말하자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 자체[오취온]가 괴로움이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생·노·병·사와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득고, 오취온고를 팔고라고 한다. 우리의 일생은 이러한 팔고로써 점철되어 있다. 말하자면 몸뚱이를 지니고 이 세상에 온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말씀이다.

불교에서는 또한 고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고고(苦苦), 괴고(壞苦), 행고(行苦)가 그것이다.

먼저 **고고**란 육체적, 감각적인 고로서 아프고 따갑고 차고 뜨거운 통증 등을 말한다. 외부의 충격이나 병에 의하여 유발되는 우리의 육체가 있는 한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가 고고이다.

괴고는 어떤 상태가 파괴되어 변화되는 경우에 느끼는 정신적 고이다. 즉 즐거운 상태가 소실될 때 느껴지는 괴로움으로서 어떤 욕망이나 기대에 반하여 그것이 소멸되거나 충족되지 못할 때에 괴고를 느끼게 된다. 예를 들면, 청춘을 자랑하다가 노쇠하거나 재산이 줄어들거나 명예가 추락할 경우 등에 느끼게 되는 고이다. 이러한 고는 오직 인간에게만 나타나는 고로서 주관적인 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고는 그러한 상태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박탈감과 상실감이 더 크게 작용하여 고로서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이러한 고는 욕망과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오는 것으로서 그러한 욕망과 기대가 크면 클수록 그것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더 큰 고통으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행고**는 일체의 현상세계가 고라는 것이다. 제행무상에 따르는 끊임없는 변화로 인하여 안정을 얻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괴로움이다. 고고나 괴고는 그러한 괴로움의 상태가 사라지거나 극복되면 낙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임에 반하여 행고는 우리가 삼계육도(三界六度)를 윤회하게 되는 한 느끼게 되는 근원적인 고를 말한다. 일체개고라는 것도 바로 이 행고를 두고 하는 말이다. 현상계에 대하여 우리는 고도 느끼지만 낙도 느끼며 고도 낙도 아닌 불고불락(不苦不樂)을 느끼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어째서 일체의 현상계가 모두 고라고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생들의 삶 자체를 고로 보는 것은 불교만의 사상은 아니었다. 삶 자체를 고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은 인도사상의 일반적 경향이었다. 그러나 불교를 제외한 다른 인도사상에서는 인간계를 벗어나 천계에 이르면 괴로움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 반하여 불교에서는 인간이 어디에 태어나든 무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무명의 바탕이 되는 우리의 업이 소멸하지 않는 한 고는 계속된다. 바라문교에서는 우주의 근본진리인 브라만과 개인원리인 아트만이 합치함으로써 고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불교에서는 '아(我)'라는 것을 주장하는 한은 집착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고도 또한 없어질 수 없다고 보았다.

불교에서도 업보에 의하여 윤회하는 범부에게 있어 무상하게 변하는 현상계는 진정한 낙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고로 보았다. 왜냐하면, 중생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린다고 하여도 무상함 속에서 그 즐거움은 끝이 나고 즐거움이 끝날 때의 괴로움은 더 크기 때문이다.

진정한 낙은 나와 내 것에 집착하는 미혹을 끊고 윤회를 벗어나 열반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가능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중생이 미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은 괴로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미혹한 중생은 삼계육도 어디를 가나 고가 따르게 되어있다.

이와 같이 불교에서는 우리가 무명에 머무르고 있는 한 일체의 현상계는 모두 고라고 본다. 윤회 전생하는 범부에게 있어 쾌락과 행복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쾌락과 행복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그 괴로움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일체개고란 깨닫지 못한 범부에게 있어서 그러한 것이며, 깨달음을 얻은 성자에게는 일체는 고가 아니다. '오온은 고이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 범부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범부에게 있어 오온은 일체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 이처럼 일체 현상을 고로 보기 때문에 다른 종교가나 사상가들은 불교를 염세적·비관적 종교로 보았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어쩐지 불교라고 하면 염세적이거나 세속을 완전히 버린 사람만이 택하는 종교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조선시대에 불교를 비판했던 정도전을 비롯한 많은 유학자들은 불교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불교관에 기준을 두고는 불교를 비판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불교가 세상을 멀리하고 가족을 버리기 때문에 반인륜적이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불교의 진면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서 불교의 이상인 열반적정(涅槃寂靜)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원래 종교는 현실의 고통을 제거하고 영원의 안락을 구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있어야만 그 길을 모색할 수 있다. 불교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대비되는 것은 이러한 철저한 현실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성제를 관함에 있어 고의 실체를 여실히 바라보고 우리의 삶 자체가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도 제대로 알게 된다. 병을 앓고 있어도 그것이 병인지도 모르면 병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고 병을 고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의 상태를 여실히 알기만 하여도 열반의 길에 들어선 것과 마찬가지이다. 고성제라고 이름붙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피니언

"웰빙(Well-Being)시대의 웰다잉(Well-Dying)"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민 3명 중 1명은 1년 이내 자살을 생각해봤고 10명 중 3명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한다. 유명인의 자살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이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요즘, 과연 '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웰빙시대에 웰다잉에 대한 생각이 아이러니라 할지라도,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명약관화한 명제 앞에서라면 삶을 구원하고자하는 불교적 웰다잉에 대해서도 불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사실 웰다잉이 웰빙과는 대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하고 잘 사는 것이 또한 잘 죽는 길이라는 의미에서 웰빙과 웰다잉은 인과의 관계처럼 서로 보완하고 상통하는 개념이다.

우리는 죽음보다 행복한 삶, 건강한 삶만 생각할 뿐이다. 하지만 행복한 죽음, 건강한 죽음이란 말도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가 세속적으로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을지라도, 그가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 참된 의미에서 행복이란 바로 죽음에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열반에 대해 다룬 〈대열반경〉을 살펴보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석가모니부처님의 태도는 한마디로 "깨어 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육신의 노쇠, 질병, 죽음을 초연하고 평정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처럼 석가모니부처님도 부모로부터 인간의 육신을 지니게 되었으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는 자신의 신체를 오래된 집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 집은 낡아 마침내 허물어지고 말듯이 육신도 시간의 진행에 따라 노화되어 결국 죽게 된다. 그런데 그 집을 지탱하고 있던 대지는 여전히 계속되듯이 부처님의 육신은 허물어지고 말지만 마음은 대지와 같이 안정되어 있다고 〈대열반경〉에서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범부들은 육신을 '나'(我)또는 '나의 것'(我所)으로 여기며 애착한다. 불가에서는 죽는 것을 '몸 벗는다' 혹은 '몸 바꾼다'고 말한다. 한평생 쓰던 몸뚱이를 벗어놓고 다른 몸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자면 죽음이란 그 자체로서 기뻐할 일도 아니며, 통탄할 일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삶을 살다가 죽었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마음에 맞추어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기 때문이다. 몸뚱이는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수 있지만 마음은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것이다. 닦았으면 닦은 대로, 못 닦았으면 못 닦은 대로, 업장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웰다잉을 위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신적인 투자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본생경〉에서도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에 대한 예행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이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다.

결국 불자라면 열심히 선업을 쌓고 기도 염불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잘 사는 것이 되고 결국 잘 죽게 되는 것이겠지만, 물질만능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웰다잉을 위해 내면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정신적인 투자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웰빙의 참뜻은 웰다잉에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웰빙을 삶의 문제에만 한정시킬 게 아니라 웰다잉에까지 확대해야 할 것이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이치에 맞지 않고 물질과 악업에 끄달려 시작되고 끝을 맺는다면, 생명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걸쳐 있는 우리의 삶마저도 제대로 인간답게 산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범부와 달리 생사에 얽매이지 않았던 부처님도 그러한 것을 경계하셨다.

이미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제되었으며, 이미 부처님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오탁악세를 만들며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는 모두 부처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이다. 잘 죽는 것, 그리고 잘 사는 것, 그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가르침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자유기고가 김용우

데스크칼럼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가 지난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큐우슈우 후쿠오카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총지종에서는 통리원장 법등 정사를 비롯한 7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도착 첫날 후쿠오카 오타쿠 호텔에서는 공식 환영 만찬을 앞두고 양국의 임원 스님들의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 회장인 미야바시 쇼-겐 스님은 인사말에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일본의 불교문화는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로 한국을 어머니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신뢰와 우의를 다지기를 바랍니다." 라며 일본 고대 문화의 발전에 한국은 어머니와 같다고 말했다. 이는 일본 불교계의 원로로서 정확한 역사관과 자기 철학을 가진 발언으로 생각된다.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일본의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고노담화 작성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일본국회에 제출했다. 고노담화는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일본군과 군의 강제성을 인정한 담화이다.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軍)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된 것이며, 위안소의 설치 ·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관해서는 구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말하였다.

당시 일본 정부의 장관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담화로 역사 인식의 전환점이 마련되는 듯 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출범과 함께 일본은 다시 극우의 정치 성향을 보인다. 오랜 경기 침체를 탈출하고 민심의 인기를 얻기 위한 아베의 정책들은 아시아 국가의 반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역사다

일본은 그 지리적 위치가 아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다. 빙하기에는 대륙과 붙어있었으나 서서히 대륙과 분리되어 네 개의 큰 섬으로 나누어진다. 근대 이전까지 대륙으로의 이동 통로인 한반도를 통하지 않고는 문화의 교류란 있을 수가 없었다. 물론 네델란드와 미국 등 구미 열강에 항구를 개방하고 서구 문화를 빨리 받아들여 근대에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동양의 맹주로 급부상하는 힘도 있었다. 그러나 약탈과 살생의 제국주의는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그 막을 내린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일본은 극심한 민족적 자괴감에 빠진다. 한국전쟁을 발판으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이전의 아픈 역사를 잊어버리려 애쓴다. 일본의 역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날조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지난 2000년 11월 5일 일본의 유수 일간지 마이니찌 신문은 일본의 구석기 유적이 70만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던 유물과 유적이 모두 조작이라는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한다.

이 신문은 미야기현 쓰기다테초 가미타카모리 유적 발굴 현장에서 도호쿠 문화연구소 부이사장 후지무라 신이치가 몰래 구석기 유물을 파묻는 장면을 보도한다. 당시 후지무라 신이치는 신의 손으로 불릴 만큼 발굴하는 유적마다 일본 구석기의 역사를 다시 쓰는 학자였다.

마이니치 신문의 추적 끝에 드러난 그의 조작행각은 1981년 일본 미야기현 유적에서의 4만년 전 구석기 발굴을 시작으로 70만년 전 유적지 까지 발굴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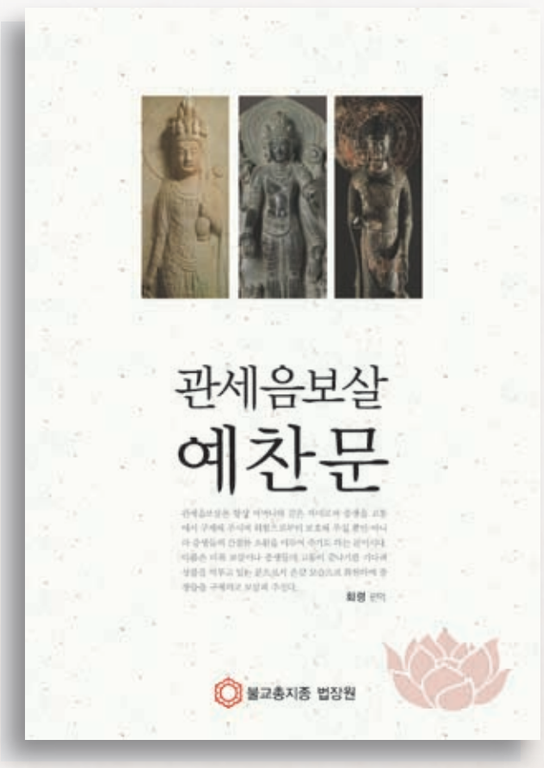
당시 일본 고고학계는 그가 발굴한 모든 유적과 유물을 재조사하여 모든 것이 조작된 결과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후지무라 신이치는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조작을 감행한 것인가?

일본은 약 2만 5천년 전 중석기 시대의 유적이 가장 오랜 유적이다. 반면 한반도는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유적만 하더라도 25만년 전 유적으로 일본과는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인다. 일본인의 뿌리가 한반도로 부터의 도래인(渡來人)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싶은 보수 우익과 문부성은 그의 발굴을 일본 민족의 자긍심 운운하며 치켜세웠다. 당시에는 교과서에 기재될 정도로 일본의 우익 보수학자들의 지원과 지지를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거짓으로 밝혀지면서 일본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한다. 단지 한반도 보다 먼저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위해 감행한 역사 조작은 스스로의 자정 능력에 의해 걸러지고 밝혀졌다.

요즘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을 보면서 후지무라 신이치의 구석기 조작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정석이다. 현재 일본 정부가 애써 외면하고 감추려는 역사는 조작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다시 제2의 후지무라 신이치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거짓은 거짓일 뿐, 역사가 될 수는 없다. 아베 정부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은 일한불교문화교류회 회장 미야바시 쇼겐 스님의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라는 발언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역사관을 정립해야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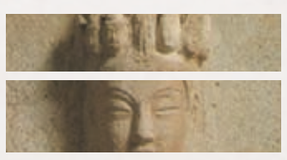
총지종보 편집장 김종열



이 책을 읽으면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저절로!!!

관세음보살 예찬문

"대자대비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온화하신 자비 광명 온누리 비추시네
무명 중생 괴로움 모두 살피사 빠짐없이 골고루 건져주시네"



- 관세음보살은 누구인가?
- 관음경
- 천수경
- 신묘장구대다라니해설
- 관세음보살 관련 각종 진언
- 옴마니반메훔의 의미와 수행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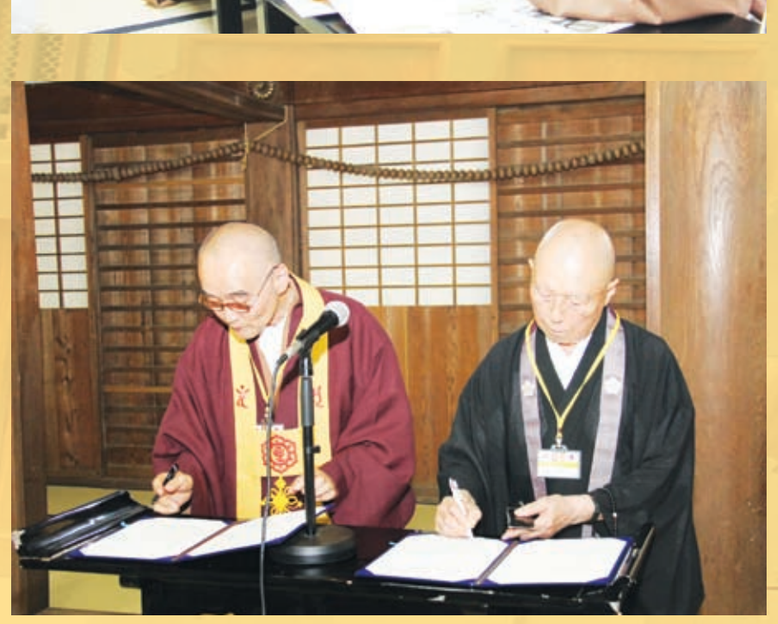
화령 편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 15,000원 | 법보시가 8,000원 (10권 이상)

《관세음보살 예찬문》 법보시로 무량복덕 쌓으시기를...문의전화 02-552-1080

제35차 한일불교문화

공식환영만찬 및 임원간담회

정토종 대본산 선도사 본대회



후쿠오카 남장원, 아소산, 벳푸 관불

생활불교에 대한 사상적 배경과 실천방향을 제시한 책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지향하는 현대인의 필독서

승속을 초월한
살아있는 불교를 위하여

생활불교
재가불교

"살아 있는 불교는
생활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얻어지고
생활 가운데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화령 저 | 불교총지종 발행
정가 10,000원 | 법보시가 6,000원 (10권 이상)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6,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교 류 대 회

• 일본 큐우슈우 후쿠오카 선도사 대회

후쿠오카 동장사 참배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서초구립
포레스타 7단지 어린이집

서울시 서초구 청계산로 11길 7-12 708동 1층 / ☎ 070-7204-2030

불교총지종 교우들에 한해
10~20% 할인

치아교정 심미보철 임플란트 치아미백 사랑니발치 스케일링 잇몸치료 충치치료

림플란트치과
LIMPLANT DENTAL CLINIC

원장 임경민
미국 보스톤대학교 임플란트학과 연수
서울대학교 치의학 대학원 수료(임플란트과정)

▶진료시간
평 일 AM 09:00 ~ PM 06:00
토 요 일 AM 09:00 ~ PM 01:00
점심시간 PM 01 :00 ~ PM 02:00
공 휴 일 휴 진

▶상담전화
02.967.2228

림플란트치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132 경동 유니온빌딩 6층

밀교연재 깨달음의 세계 · 불보살의 도량,
법경정사의 만다라 이야기 (4)

만다라의 존상(尊像) ②'불(佛)'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법천사 주교)

지난호에서 만다라의 존상(尊像) 가운데 제일이 '불(佛)'이라고 하였고, 그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불상(佛像)의 각부 명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부처님의 상[佛像, 如來像]은 깨달으신 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불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납의(衲衣)만을 걸치고 몸에 전혀 장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경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예외가 있는데 바로 대일여래 비로자나불이다.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진리의 부처님, 법신불이기 때문이다. 장신구를 갖추고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유일한 부처님이 비로자나불이다. 그 외의 부처님은 대부분 화려하지 않다. 비로자나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부처님의 상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의 모습이며, 납의(衲衣)에 화려한 장식을 하지 않는다.

머리에 육계(肉髻)가 있다. 육계란 정수리의 상투머리를 말한다. 즉 솟아오른 정수리를 말하는 것으로 지혜를 상징한다. 그 육계 가운데에는 큰 구슬이 하나 있는데 이를 육계주(肉髻珠) 라 한다. 육계주는 지혜의 광명이 빛나고 있음을 나타낸다. 육계의 모발들은 하나같이 오른 쪽으로 소용돌이 치고 있는 모양이다. 이를 나발(螺髮)이라고 한다. 머리카락이 마치 소라껍데기와 같이 소용돌이 치며 말려 올라간 모양이다. 마치 머리카락이 나선(螺線)과 같다고 하여 나발(螺髮)이라 한 것이다.

이마에는 흰색의 긴 털이 한 오라기가 나 있는데 이를 백호 (白毫)라 한다. 이 털도 마찬가지로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는 지혜가 용솟음 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목에는 세 줄기의 주름살이 나 있는데 이를 삼도(三道)라 한다. 삼도(三道)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번뇌와 그로 인한 업과 고통으로서 혹(惑) · 업(業) · 고(苦)를 의미하기도 하고, 수행의 과정을 3단계로 나눈 것으로 견도(見道) · 수도(修道) · 무학도(無學道)를 나타내기도 하며, 육도(六道) 가운데 지옥 · 아귀 · 축생의 삼악도(三惡道)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모두 무명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고통을 없애고 깨달음에 이른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육계(肉髻) · 백호(白毫) · 연화(蓮華) · 광배(光背) 등은 모두 부처님의 지혜와 깨달음을 표현한 것이다.

부처님께서 걸치고 있는 옷은 오로지 납의(衲衣) 뿐이다. 납의는 꿰매고 기워진 옷을 말하는데, 이는 출가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몸에는 꿰매 놓은 천 쪼가리 한 장만이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개 수행과 깨달음을 여러 가지 손모양으로 나타낸다. 이를 인상(印相)이라 하는데 밀교에서는 이러한 손모양을 수인(手印), 결인(結印), 계인(契印)이라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인계(印契)라 한다. 모두 인상(印相)과 같은 말이다. 모두 깨달음의 경지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같다.

그리고 부처님은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부처님은 맨바닥에 계시지 않고 항상 무엇인가를 받치고 앉아 있거나 서 계신다. 맨바닥에 계시지 않는다. 항상 바닥에는 무엇인가 놓여 있다. 사람으로 치면, 방석을 깔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처님께서도 맨바닥에 계시지 않는다. 항상 연꽃 위에 앉거나 서 계신다. 이 연꽃을 연화대(蓮華臺) 또는 연화좌(蓮華座)라 부른다.

이러한 연꽃은 좌대(座臺)에만 쓰이지 않는다. 불보살이 손에 지니는 지물(持物)로도 쓰인다. 지물(持物)은 불보살의 덕성과 공능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연꽃은 지혜, 깨달음을 상징한다.

▲ 불상의 각부 명칭 / 태장계의 보당여래(寶幢如來)

▲ 본존 다라니 뒤에 광배(光背)가 조성되어 있다.(총지사)

이러한 연꽃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색깔과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색깔에 따라 붉은 색의 적연화(赤蓮華), 흰 색의 백연화(白蓮華), 청색의 청연화(靑蓮華) 등으로 구분되고, 모양에 따라 아직 피지 않은 미개부연화(未開敷蓮華)와 반쯤 핀 반개(半開)의 연꽃, 또 완전히 핀 개부연화(開敷 蓮華) · 만개(滿開)의 연꽃으로 나누어진다.

적연화는 붉은 색의 연꽃으로 padma라 하며, 음사하여 발두마(鉢頭摩)라 하고, 불보살이 앉는 연화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연꽃이다. 이 적연화는 인도 신화 속의 신(神) 가운데 우주 질서를 유지하는 비슈누신의 배꼽에서 생긴 연꽃에서 범천(梵天)이 태어나 결가부좌하여 만물을 창조 · 유지시키고 있다는 데서 유래하여 연화(蓮華)를 좌대(座臺)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백연화는 흰 색의 연꽃으로 pundarika라고 하며, 음사하여 분타리가(芬陀利迦)라고 한다. 대개 연꽃은 더러운 진흙탕 속에서 피지만 전혀 더럽지 않으며 또한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청정성에 비유되는데 특히 백연화가 여기에 해당한다. 번뇌에 찌들지 않는 청정무구(淸淨無垢)의 덕성을 나타낸다.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항상 청정함에 머물러 있으므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이라 한다. 대승경전의 최고의 꽃이라 불리어지는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Saddharma-puṇḍarīka-sūtra)은 백연화에서 유래한 경전의 이름이다.

청연화는 청색의 연꽃으로 nilotpala라고 하며 음사하여 우발라(優鉢羅)라 한다. 이 청연화의 연꽃은 고깔모양을 하고 있어 날카로운 칼[劍]에 비유된다. 그 칼은 번뇌를 끊어 없애는 용도로 쓰인다. 그러므로 칼은 지혜를 상징한다. 지혜의 칼로써 번뇌망상을 잘라 없애게 되는 것이다.

연꽃은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피지 않은 미개부연화(未開敷蓮華)와 반쯤 핀 반개(半開)의 연꽃, 또 완전히 핀 개부연화(開敷蓮華) · 만개(滿開)의 연꽃이 있다.

연꽃은 색깔과 모양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적연화 · 백연화 · 청연화…, 미개부연화 · 반개연화 · 개부연화…

미개부연화(未開敷蓮華)는 아직 피지 않은 연꽃으로 무명중생의 보리심이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중생이 지니고 있는 불성(佛性)이 발현되지 않았음을 표현한 것이다.

반개(半開)의 연화는 조금 핀 연꽃으로, 중생이 수행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계위(階位)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를 초할연화(初割蓮華)라고도 한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머지 않아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개부연화(開敷蓮華)는 완전히 피어난 연꽃이다. 이는 지혜의 완성, 깨달음을 나타낸다. 그래서 활짝 핀 연꽃으로 묘사된다. 이를 만개연화(滿開蓮華)라고도 한다. 이러한 부처님으로는 태장계만다라의 남방에 위치한 개부화왕여래(開敷華王如來)가 있다. 이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발하게 하는 부처님이다.

부처님의 등 뒤에는 항상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빛을 광배(光背)라 한다. '뒤에서 나는 빛'을 의미한다. 그 광배는 태양을 묘사한 것으로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그 광배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머리 쪽에도 빛이 나고 몸 쪽에서도 빛이 난다. 앞의 것을 두광(頭光)이라 하고, 뒤의 것을 신광(身光)이라 한다. 그 광배의 둘레에는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번뇌를 불태워서 지혜를 일으킨다는 의미다. 이 불꽃을 화염(火焰), 화염광(火焰光)이라 한다.

총지종의 서원당에 모셔진 육자진언 '옴마니반메훔'의 광배도 이와 같은 형상이다. 마치 붉은 태양이 솟아올라 빛을 환하게 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진언염송을 통해 번뇌망상을 불태워 없애고 용맹정진력으로 지혜를 완성해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처님의 상(像)은 바로 이러한 특징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음호에서는 부처님의 상호(相好)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왜 천도불공을 올려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상장례와 49재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천도불공 안내서!

서방정토 극락왕생을 위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공

* 임종 시에 불공을 해드려야 하는 이유
* 재(齋)란 무엇인가?
* 49재의 의미, 유래와 근거
* 49재를 행하는 이유
* 49재는 어떻게 행하는가? (절차와 방법)

법공 종사 · 법경 대정사 共著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비매품/ 59쪽
구입문의 : (02) 552-1080~3

“회당 대종사의 창종 정신을 실현하자”

창교절 기념불사 · 세월호 희생자 추선 49일 회향

진각종(통리원장 회정 정사)은 6월 14일 오전 11시 서울 총인원 내 탑주심인당(서울시 성북구 화랑로13길)을 비롯한 국내외 심인당에서 제 68회 창교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는 탑주심인당에서 서울교구연합기념불사로 봉행된 창교절 기념불사에서 법어를 통해 “진각종의 창교이념은 불교흥왕, 밀교중흥, 현세정화, 심인현현이다”며 “한국불교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창교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정 정사는 이어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수행정진, 교화활동에 박차를 가하자”며 “개인은 심성을 밝혀 바른 생활을 하게하며, 이웃사회는 더불어 발전하고, 국가의 흥왕과 인류의 행복시대가 구현되도록 다함께 서원하고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기념불사에 동참한 진언행자들은 강도발원을 통해 “어두운 말법시대, 물질의 이기와 분열의 공포가 넘쳐나는 이 때 참회와 서원을 다시 세우겠다”며 “이제 진언행자 모두는 항상 자성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근본임을 깨달아 화려함에 전도되지 않고 나눔과 화합을 위한 지혜로운 서원과 실천을 이어나가겠다”고 서원했다.

진언행자들은 또 ‘창교절 불사 게송’을 봉독하며 창종의 의미를 되새기고, 진호국가불사를 통해 평화통일과 국민화합, 국가안정과 경제발전도 기원했다.

이어진 세월호 희생자 추선 49일 강도불사 회향불사에서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삶의 인연을 다한 희생자들의 왕성생불과 유가족의 마음과 부상자들의 빠른 치유를 서원했다.

회향불사에 동참한 진언행자들을 대표해 명선심인당 교화스승 심정도 전수는 강도발원을 통해 “이 시대 큰 법문으로 다가온 세월호 사고의 아픔을 앞으로도 잊지 않고 어리석음과 무명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의 깊은 참회로 정화해서 이 사회에 커다란 교훈과 지혜가 되도록 실천하겠다”며 “이 세상 일체의 생명이 상호 존중되는 밀엄정토가 반드시 이뤄지길 서원한다”고 말했다.

진각종은 세월호 희생자들을 위해 4월 28일부터 49일간 전국 심인당에서 매일 오전 10시 극락왕생서원 강도불사를 봉행하고 희생자들의 아픔을 함께했다.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새 방향’ 모색

불교교육포럼 개최

▲ 6월 13일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교육연합회

불교교육연합회(회장 김희옥, 동국대 총장)는 6월 13일 동국대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불교종립학교의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의 새 방향’을 주제로 제5차 불교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불교교육연합회 산하 13개 법인 29개교(대학교 1, 고등학교 14, 중학교 13, 초등학교 1) 학교장 및 교법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관련 인사들이 참석했다.

김희옥 불교교육연합회장은 개회사에서 “다종교사회에서의 종교교육은 먼저 다양한 종교문화를 이해시키는 ‘객관적인 종교학 교육’과 ‘보편적 종교성 교육’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성숙된 불교적 인격을 도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러한 접근방법은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 개인의 ‘신앙의 자유’ 문제간의 상충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법타스님은 기조법문 ‘불교종립학교 건학이념의 실천 과제’에서 “현재 불교교육연합회에는 13개법인 29개 초 · 중 · 고 · 대학이 가입되어 있다”며 “법인별, 학교별로 그 교육내용과 제도가 서로 다르고, 또한 교법사에 따라 그 교육의 질 또한 고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히, 법타스님은 “종립학교 교장과 교법사는 교사와 법사의 양대 역할로 불교의 미래인 청소년 교화의 최전선에서 봉사하고 있다. 이 성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법사는 신심과 원력과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 ‘교법사의 위상과 포교영향력 증대를 위해 재단에서 학교운영 책임자(교장)까지도 진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법사간 포교와 정보교환이 민활해야 한다’ ‘종단적으로 교법사의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 ‘정년 이후에도 교법사의 포교능력을 종단에서 활용해야 한다’ ‘법사는 애종, 애교심을 바탕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바른 견해(正見)를 가지고 의사를 피력해야 한다’ ‘법사는 상식이 풍부해야 한다’ ‘법사는 모든 사람의 멘토로서 일상이 도덕적이어야 한다’ ‘교법사는 전국 일반 중고교 불자 교사들의 지도법사가 되어야 하고, 각 종립학교 교사들도 전국교사불자회의 회원이 되어야 한다’ ‘동국대 입학 다르마 전형(불교계 추천) 학생 추천시 입학전형 취지에 맞게 추천해야 한다’ ”고 중등 종립학교의 건학이념 실천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최상균 불교교육연합회 상임부회장(광동고 교장)은 ‘학교자율화시대 종립학교장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학교장이 학교구성원들을 학교의 목표 실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동기화시키는 지도성을 발휘할 때 좋은 학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며 “학교장의 리더십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학교장의 리더십에 따라 학교의 교육의 질이 달라지고 이 영향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에서의 성취에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필리핀 재해복구지역 컴퓨터 40대 전달

조계종 군종특별교구는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이 6월 18일 오후 7시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필리핀 파병장병 아라우부대 2진 환송법회를 봉행했다. 환송법회에 앞서 18시 20분 국제평화지원단에서 필리핀 태풍피해 수해복구 지역 관공서에 컴퓨터 20대, 초등학교에 컴퓨터 20대 전달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군종특별교구는 “전달식 이후 국제평화지원단 법당에서 군종교구장 정우스님 주관으로 봉행됐다”며 “필리핀 합동지원단 아라우부대 2진 파병불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임무 수행과 격려를 위한 불자장병 환송법회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컴퓨터 지원은 아라우부대가 관공서 건물 복구활동의 마무리 작업으로 현지 관공서 요청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며 “소식을 전해들은 군종교구장 정우스님은 이사장으로 있는 사)홍법문화재단에서 1천만원과 군종교구의 총 2500 여만원의 지원으로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달은 6월 하순에 아라우부대 2진 병력 수송 시 관공서 지원용 컴퓨터 20대 탑제와 8월 중순 주 · 부식 수송선 편으로 초등학교 지원용 컴퓨터 20대가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우스님은 지난 4월 7일부터 9일까지 필리핀 재해복구 지역의 지원과 아라우부대(부대장 이철원 대령)를 군승법사 2명과 함께 방문하여, 군종교구에서 모금한 3천 7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조계종 198회 중앙종회 개회

자승스님 “종단의 미래 위한 과감한 결단을”

조계종(총무원장 자승) 198회 중앙종회가 6월 25일 오전 10시 총 80명의 의원 중 58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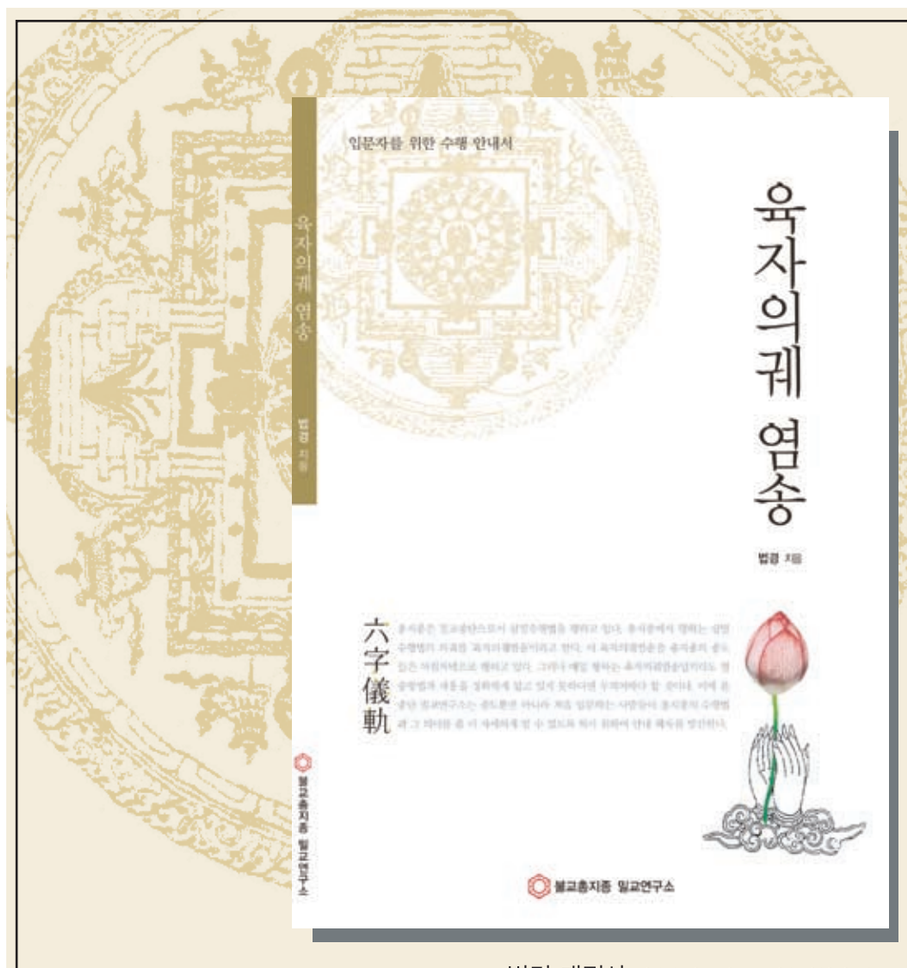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2012년 이후 비구니스님들이 종단운영에 참여하는 폭을 대폭 확대하자는 의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었다”며 “이번 기회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중앙종회 내에서 지혜롭게 조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승스님은 “94년 개혁이 종단 운영의 제도적 분산이었다면, 오늘의 화두는 사부대중의 다양한 참여와 기여이다. 오로지 종단의 미래, 불교의 중흥만을 생각하며 정진해야 할 때이다. 한 생각 크게 일으켜 종단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피력했다.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은 개회사에서 “불교 종단의 난립으로 한국불교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불교의 대정치적 사회적으로 볼 때 개혁은 용기라고 생각한다.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2013년도 중앙종무기관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액은 227억 원, 결산액은 239억 원, 차기년도 이월금은 33억 원이 승인됐다.

이날 임시종회에서는 호법부장에 세영스님, 재심호계의원에 허운스님, 초심호계의원에 도신스님, 소청심사위원에 법준스님, 허운스님에 대한 선출의 건이 통과됐다.



초심자들에게는 ‘수행입문서’로,
모든 종도(宗徒)들에게는 ‘수행지침서’로 삼을 수 있는 총지종의 수행 총서(叢書)!

입문자를 위한 수행 안내서
육자의궤 염송

『육자의궤염송』으로 재난소멸과 소원성취를 이루고,
마음의 평온과 행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책자는 ‘육자의궤 염송의 순서와 방법, 그 의미’와 함께
총지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진언수행의 목적’, ‘각종 진언의 공덕’, ‘염주의 공덕’, ‘사원에서의 예절’,
‘서원당 예절’, ‘불공 예절’ 등 수행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다양하게 싣고 있다.

법경 대정사 지음/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불교총지종 밀교연구소 발행/ 정가 10,000원 / 114쪽
* 구입문의 : (02) 552-1080~3

관세음보살 42수(手) 진언

여의주수(如意珠手)진언

옴 바아라 바다라 훔 바타

만약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를 갖추어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이 진언을 외우라

유물로보는 비로자나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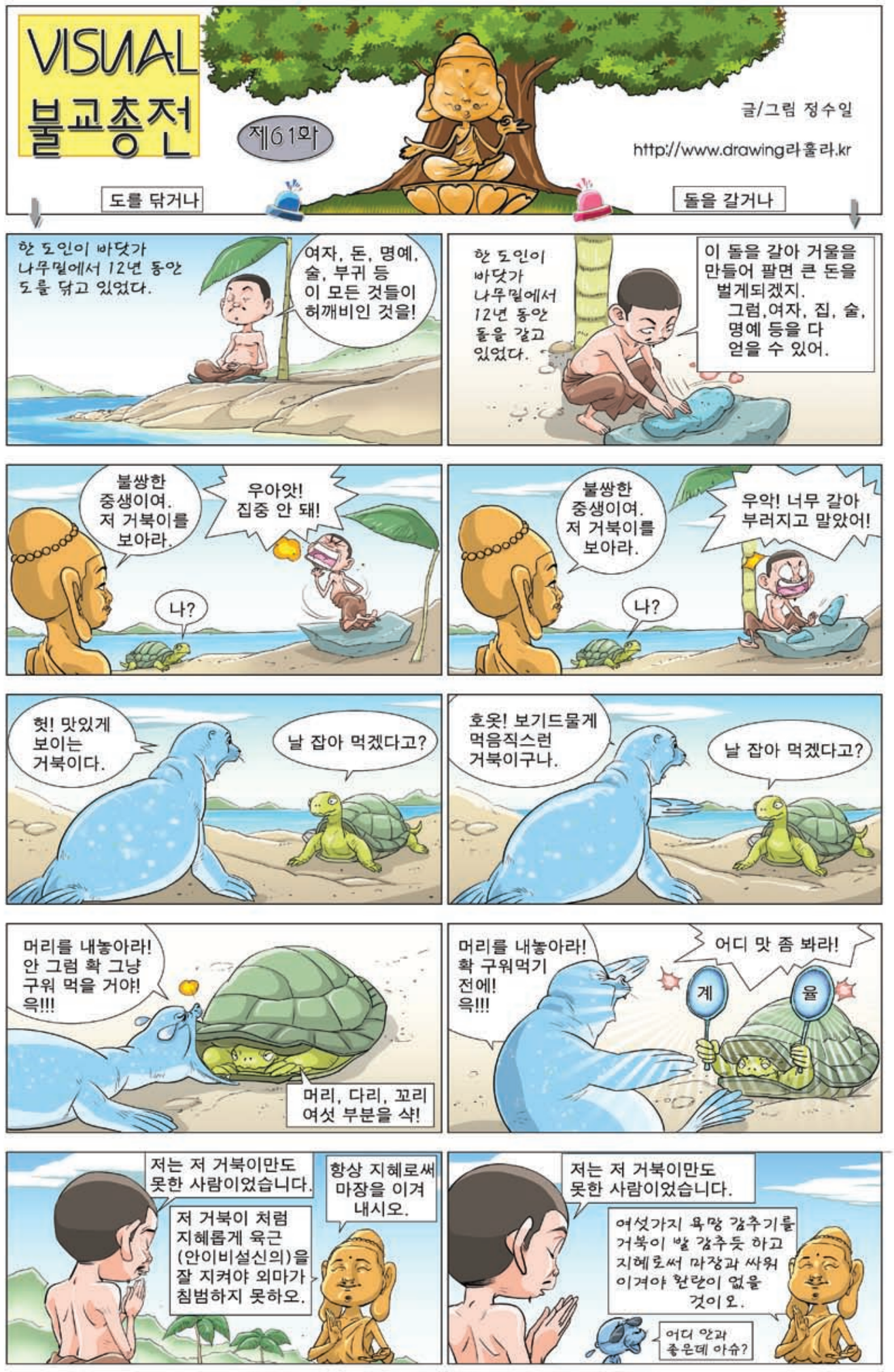
보물 제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慶州 祈林寺 塑造毘盧遮那三佛坐像)
소 재 지 : 경북 경주시 양북면 호암리 420번지 기림사
시 대 : 조선시대

▲ 제958호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

신라 선덕여왕 12년(643) 승려 광유가 창건하여 임정사(林井寺)라 부르던 것을 원효대사가 기림사로 고쳐 부르기 시작하였다. 기림사 대적광전에 모셔진 불상인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은 향나무로 틀을 만든 뒤 그 위에 진흙을 발라 만든 것이다.

중앙에 비로자나불을 모시고 좌우에 약사(藥師)와 아미타불(阿彌陀佛)을 협시로 배치한 형태이다. 근엄하면서도 정제된 얼굴, 양감이 풍부하지 않은 신체의 표현, 배부분의 띠로 묶은 옷 등에서 16세기 초에 만들어진 불상으로 추정된다.

자료제공=문화재청



내용참조:불교총전 자기에 대한 덕의 편 369p

장엄한 불보살님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체제법의 본질을 원만하게
성취한 불보살님의 장엄도량을
사진으로 나타낸 만다라를 가정내에 모시고
수행정진의 지표로 삼으실 수 있는
인연을 맺으십시오.

• 전화문의 _ 불교총지종 통리원 02) 552-1080
각 사찰 주교님께 문의하셔도 구입가능합니다.

• 계좌번호 _ 우리은행 1005-480-047811
(재) 불교총지종 유지재단

1. 만다라 세트 (금강계 만다라 +태장경 만다라)
33cm X 33cm (액자포함)
30,000원

태장경 만다라 _ 服藏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정확하게는 '대비 태장생 만다라'이다. 대일경에 근거해 그려진 이 만다라는 태아가 모태 속에서 생육되어 가는 것에 비유해 대일여래의 보리심이 모든 생성의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금강계 만다라 _ 金剛界曼荼羅

밀교 양계만다라의 하나로 서만다라고도 하는 이 만다라는 '금강정경'에 근거해 그려졌다. 중생의 부처의 경지 즉,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과 동시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나타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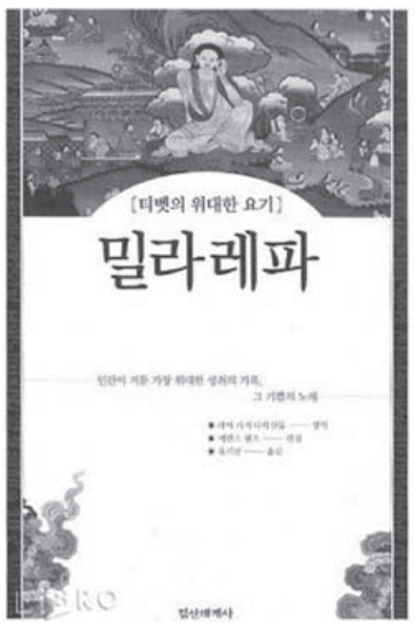
2. 가정다라니
46cm X 27cm (액자포함)
27,000원

가정다라니

불교서적 에세이

‘즉신성불’의 경지 보여준 특별한 수행자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



티베트의 가장 위대한 성자로 추앙받고 있는 밀라레파는 독특한 수행자였습니다. 보통 사람보다도 더 나쁜 위치에서 수행의 길에 들어선 걸 보면 절대로 전생의 업이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업연을 갖고도 철저하게 수행하여 마침내 완벽한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지금 이 생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의 경지를 보여준 특별한 수행자였습니다.

밀라레파의 수행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가 얻은 깨달음의 게송을 전기형식으로 기술한 책 〈티벳의 위대한 요기 밀라레파〉는 그의 수제자 레충에 의해 쓰여 졌는데, 티베트 문학사에서 〈티벳 사자의 서〉와 함께 가장 유명한 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밀라레파의 삶이 워낙 드라마틱하기에 독자에게 흥미를 주기에 충분한 것도 이유겠지만 평이하고 단순한 문체로 쓰여 져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 책이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7살 때 부유한 장사꾼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밀라레파의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욕심 많은 당숙과 당숙모에게 재산을 모두 빼앗긴 밀라레파 가족은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복수심을 품으면서 살아온 어머니는 밀라레파가 성인이 됐을 때 그에게 흑마술을 배우게 하여 당숙과 당숙모, 그리고 그들과 한편이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흑마술을 배운 밀라레파는 당숙의 아들 결혼식 날 집이 무너지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나 이후 살생에 대한 죄책감은 밀라레파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카귀파의 창시자인 마르파을 찾아 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파는 그에게 쉽게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계속 집만 짓게 했습니다. 집을 다 지으면 허물고 또 짓게 하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법을 전수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되지 못한다면 살생의 중업으로 인해 윤회의 수레바퀴에 바질 게 번했기 때문에 밀라레파는 한시 바삐 수행을 하고 싶었는데 스승은 그의 마음은 아랑곳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집짓기만 하던 밀라레파는 마침내 스승에게서 법을 전수받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스승을 떠나 고향에 온 이유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하얀 뼈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고향집은 폐허가 돼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비로소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고향마을에 있는 산속 동굴로 들어가 쐐기풀로 죽을 쑤어 먹으면서 9년 간 명상을 했습니다. 쐐기풀로 연명하다보니 몸은 초록색으로 변하고, 머리는 가발을 쓴 것처럼 산발이고 팔다리는 부셔질 것처럼 가늘어 졌습니다. 이렇게 육체를 잊어버리고 수행에 매달려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밀라레파가 수행을 하게 된 동기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죄책감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향집에서 하얀 뼈로 변한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허망함을 절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머무는 시간을 오직 명상을 하고 깨달음을 얻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했고, 스승 또한 그에게 동굴에 머물면서 명상에 전념하라고 당부했기에 그는 평생 명상을 했던 것입니다.

밀라레파 전기를 통해 강조하는 것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말끔하게 청산하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조화를 이루면서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미련까지도 말끔하게 버리고 오직 수행에만 매달릴 때 다음 생을 기약할 것 없이 바로 지금 이 생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밀라레파의 삶은 이 생에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즉신성불’의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유기고가 = 김은주

· 제3회 국제포교사 이웃종단, 이웃종교 문화체험 참가기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 ‘다름’ 속에 ‘같음’

법장원 계장 배공주

한국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간의 교류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개념으로 이웃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알아감으로써 종교 간의 평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이웃종단, 이웃종교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는 종단협 이상규차장의 설명으로 시작된 일정은 조계종을 비롯한 각 종단과 단체에서 모인 36명의 참가자들의 관심과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원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조계종 국제회의실에서의 입제식과 조계종역사 소개를 시작으로 진각종(성북구 하월곡동 소재) 방문에서는 종단소개와 밀교종단 기본교리 설명, 재가불교종단의 특징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자세한 설명을 해주신 호당정사(진각종 기획실장)는 “조계종은 선학을 중심으로 한다면, 밀교종단인 진각종에서는 교학선을 중심으로 확장해 나감으로 선학과 교학이 균형 잡힌 불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는 불교의 이원화를 말씀하셨다.

참가자 과반수이상이 조계종 관계자로 밀교종단, 재가불교종단에 대해 처음 접한다는 의견, 같은 불교계에서도 서로 모르는 부분이 많았다며 새롭다는 반응들이 있었고, 수행방법이나 교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었다.

덕수궁 옆에 위치한 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는 수녀님과 비구니스님, 개신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종교화합과 평화적인 교류,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기도모임을 결성하여 진행하고, 다종교 국가임에도 서로 다툼 없이 공생하고 있는 한국종교문화를 세상에 알리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소개도 전해주셨다.

원불교 은덕문화원 교구장 이선종교무님은 “활발한 문화예술행사와 자연환경사업을 통해 종교 내에서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사회 속으로 들어가 역량을 발휘하여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살아있는 종교로 발전하는 것이다”라며,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하는 종교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셨다.

이외에 정토회(회주 법륜스님)는 봉사자 중심으로 체계적인 조직운영을 하며 자선사회사업과 불교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의 법당에서 친환경운동을 직접 실천하고 있었고, 이슬람사원에서는 철저한 꾸란의 계율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불자의 삶, 포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신 일감스님(조계종 기획실장)은 “내 옳음 속에 틀림이 있고 상대방의 틀림 속에 옳음이 있으므로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다른 하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소통이며 중도” 라는 말씀과 함께 심도 깊은 질의응답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웃종교와의 만남〉에 참석하신 개신교 목사님, 천주교 신부님, 원불교 교무님들도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지금 시대에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막중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과 같으며, 지금은 서로 반목과 다툼의 시기가 아니라 함께 화합과 상생으로 나아가야하는 시기이다.”라며 꾸준히 종교 간의 화합과 평화적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다.

각 종교와 종단을 방문하면서 각각의 종교의 특성이나 종지, 교리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종교가 사회에 기여해야한다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모습들은 결코 다르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서로 다름을 알아가고 이해하려고 방문한 이웃종교였지만 그 다름 속에 같음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다름 속에 같음’을, ‘같음 속에 다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와는 다른’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눈으로 시야가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서로의 본질을 바르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일정은 내 종교만이 전부라는 아만에서 벗어나 이웃종교를 알려는 노력과 다른 것을 올바르게 보고 수용하며, 이해하려는 열린 마음에서부터가 종교의 참 본질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유익한 체험이었다.

방문종단 : 조계종(조계사), 진각종(전법전승원), 천태종(관문사), 정토회
이웃종교 : 성공회(서울대성당), 천주교(명동성당), 원불교(은덕문화원), 이슬람교(한국총본산)
방문사찰 : 낙산사, 삼화사, 월정사, 해신당공원(민속신앙)

나를 돌아보는 수행인의 길잡이!
불교수행의 길에 처음으로 들어선 불자들의 필독서
초발심자경문
·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 자경문(自警文)
“《초발심자경문》은 불교수행의 길에 들어선 초심자뿐만 아니라 입문한 지 오래된 전문수행자도 자신을 살피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머릿말 중에서-
✓쉬운 번역!
✓간결한 표현!
✓읽기 쉬운 원문!
初發心自警文
초발심 자경문
불교총지종 법장원
화령 번역 / 불교총지종 법장원 발행
정가12,000원 / 169쪽
법보시 받습니다. 법보시가 (7,000원 / 10권 이상)
문의전화 02-508-8933

불교총지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2동 776-2)
Tel: 02-552-1080~3 Fax: 02-552-1082 www.chongji.or.kr